

國語 再歸代名詞에 대하여

許 淑 子*

目 次	
I. 序 言	IV. 再歸化에 있어서 先行詞와 叙述語
II. 再歸代名詞의 概念	V. 結 語
III. 再歸代名詞의 形態	

I. 序 言

代名詞(Pronoun)는 한마디로 體言을 대신하여 사용되는 말이다. 이것은 그 가리키는 대상에 따라서 人稱代名詞와 事物代名詞로 나누이고, 인칭대명사에는 1·2·3人稱의 一般人稱代名詞와 소위 通稱代名詞가 있다.

그런데 近者 再歸代名詞라는 文法用語가 쓰이고, 이는 종래 몇몇 文法學者들이 쓰던 통칭대명사에 대신하는 말로서 사용되는 用語이다.

國語 再歸代名詞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이희승의 「새문법」(1978), 김민수의 「문법」(1979) 등의 文法書와 國語辭典에서는 언급되지도 않았고, 최현배의 「우리말본」(1929, 1983¹⁰: 233)에서 ““저”는 말 가운데에 대개는 이미 한 번 들어난 사람 그 이를 돌이켜 가리키는 말이요...” 라고 하여 再歸稱의 의미를 담은 내용을 기술하고는 있지만, 재귀대명사를 따로 설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응백·안병희의 「문법」(1979), 박지홍의 「우리현대말본」(1981) 등에서 재귀대명사를 따로 설정하고 있

*국어교육과 4년

으니 재귀대명사에 대한 인식이 언제부터 싹트기 시작했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合理的이고 言語學的 理論을 바탕으로 재귀대명사의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變形生成理論의 도입 또는 국어적용의 시도와 더불어 그 본격적인 연구가 최근에 시작되었다.¹⁾ 이에 대한 연구는 주로 國語 再歸代名詞의 統詞 및 意味論의 연구, 先行詞의 條件, 再歸代名詞化 過程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국어 再歸代名詞에 대한 연구가 英語나 日本語 再歸代名詞의 연구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²⁾ 국어 재귀대명사에 대한 제반 사항들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概念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우선 그 개념을 나름대로 정립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재귀대명사의 형태를 ‘저/자기/당신’ 그리고 ‘자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再歸化에 있어서 先行詞의 條件과 叙述語의 영향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Ⅱ. 再歸代名詞의 概念

再歸代名詞는 그 用語 자체의 뜻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먼저 나온 名詞나 代名詞를 다시 가리켜(再歸하여) 사용되는 말’이라 하겠다. 이러한 概念은 이미 여러 사람들이 설정해 놓고 있다.

최현배(1929 : 233)에서는 共通稱格의 人代名詞 “저”를 기술하면서 한 번 들어난 사람을 다시 가리키는 말이라 하여 일종의 재귀대명사를 인정했다.

이익섭(1978)도 어떤 대명사가 선행하는 NP를 되받는 데 쓰인다 해서 다른 代名詞와 구분하여 쓰인 말³⁾로 이해된다.

-
- 1) 성광수(1981), “국어 재귀대명사에 대한 재고”-「자기」와 「자신」을 중심으로, 한글172호, p. 30.
 - 2) 성광수(1975), “國語 代名詞에 대하여”-人稱代名詞의 소위 通稱과 再歸化에 대한 檢討, 어문논집16(고려대 국어국문학 연구회).
성광수(1981)
이익섭(1978), “한국어의 再歸代名詞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인문논총2 창고.
 - 3) 이익섭(1978), p.13.

이익섭·임홍빈(1983: 247)에서는 '선행하는 동일체를 지시하는 명사나 대명사를 다시 받을 때 일반대명사와는 구별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대명사'라고 하여, 일반대명사와 구별되는 형태를 가지고, 늘 선행사를 재귀할 때만 쓰이는 대명사로 '자기'가 있다고 했다.

또한 고영근·남기심(1986: 81)에서도 '...앞에 나온 제3인칭 주어가 되풀이됨을 피할 때 쓰이는 인칭대명사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개념들은 앞에서 간단히 언급한 재귀대명사의 개념에 부합되는 것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데 성광수(1975, 1981)에서는 '동사로 나타나는 주체어의 동작 또는 행위가 어떤 다른 목적어에 미치지 않고 주체어에 재귀하는 대명사'라 정의하고 재귀대명사는 代名詞的 特性과 再歸的인 特性을 겸비해야 한다고 했다. 국어 재귀대명사에 대한 이 정의는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왔던 재귀대명사의 여러 형태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정확한 개념 설정을 요구하게 된다.⁴⁾ '중이 자기(제) 머리 못 짊는다'에서 '자기(제)'는 '중'이라는 先行名詞를 다시 가리켜 사용된 재귀대명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나, 성광수의 개념에 따르면 무엇이 무엇으로 재귀되었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文章에서의 '자기(제)'를 재귀대명사로 보는 데에 문제가 생긴다.

요컨대 재귀대명사의 개념설정에서 고려해야 될 것은 再歸的 特性인 듯싶다. 그 재귀적 특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재귀대명사의 개념이 달라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보편성에 입각한 개념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再歸性(reflexivity)에 대한 言語學的 해석을 보면, 自然言語의 특징적 성격 중의 하나로서 자기자신을 지시하거나 혹은 기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⁵⁾ 또한 Lyons(1977: 5, 83)에서도 'Language can be turned back on itself, as it were', '...no non-human semiotic systems other than language have this property'라 함으로써 언어는 자기자신으로 재귀할 수 있으며 이것은 언어만의 특성이라고 밝혔다.

4) 성광수(1981)는 선행사가 어떤 형태로든 후행 대명사로 되풀이 즉 재귀한다는 뜻으로 재귀대명사를 규정한다면 구태여 일반대명사와 재귀대명사를 구분지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

5) 이정민·배영남(1982), 「언어학사전」 한신문화사, p. 647.

재귀대명사의 재귀적 특성도 바로 이런 自然言語의 특성인 再歸性的 의미임에 틀림없다. 즉 재귀대명사는 일종의 代名詞인데, 그 대명사 중에서 먼저 나온 대명사를 다시 지시하는 재귀적 특성의 대명사로 인식하면 된다. 물론 敘述語가 다른 目的語가 아닌 主體語에 다시 再歸한다는 의미의 재귀적 특성을 재귀대명사가 갖는 재귀성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의미는 국어 재귀대명사를 이해하는 데 약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Lyons(1968:280-281)에서는 人稱範疇을 논하면서 'Traditionally, Person is regard as a Category of the verb...'라고 했지만 'In general Syntactic theory, Person(like number) is only secondarily, and derivatively a category of the verb...'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 국어도 人稱範疇은 動詞의 二次的인 範疇에 지나지 않는다. 간혹 국어에서 여러 語尾들의 용법에 나타나는 제한이나 代名詞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구별되고 있지 않은 動詞의 人稱을 밝히는데 공헌하기도 한다.⁶⁾ 그러나 국어의 인칭은 동사와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다.

국어 재귀대명사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재귀대명사와 어떤 동사가 서로 필연적인 관계를 맺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동사와 관련하여 재귀대명사를 이해하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敘述語와 主體語의 관계로 재귀대명사의 재귀적 특성을 파악하는 입장은 고려해 봐야 할 것 같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국어에서의 인칭이 동사의 2차적인 범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처럼 재귀대명사의 재귀적 특성을 선행하는 대명사를 다시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면 이제 그 개념을 설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一般代名詞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先行하는 名詞나 代名詞를 다시 가리켜 사용되는 말'로 그 개념을 규정하고자 한다.

6) 예를 들면, 존칭선어말어미 '-시-'가 1인칭에는 제한된다든지, '밥을 먹는다'에서 '먹는다'는 인칭 구별이 안되지만 '나는, 너는, 그는' 등이 삽입되면 이것은 대명사의 인칭에 따라 1인칭, 2인칭, 3인칭의 동사로 볼 수 있다.

II. 再歸代名詞의 形態

1. ‘저/자기/당신’과 ‘자신’에 대한 검토

- 1) 명수는 a. 그
b. 자기
c. 자신 } 의 업무를 잘 수행한다.

1a)–1c)의 ‘그’ ‘자기’ ‘자신’ 등은 앞의 ‘명수’와 相互指示性 (coreferential)⁷⁾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것들은 先行詞를 되받고 있다.

앞에서 필자는 先行하는 名詞나 代名詞를 다시 가리켜 사용되는 말을 재귀대명사라 했다. 이에 비추면 ‘그’ ‘자기’ ‘자신’은 모두 재귀대명사가 되어야 할 터이지만 통상적으로 ‘그’를 재귀대명사라고 하지는 않는다.

- 2) a. 그
b. 그녀
c. 그사람 } 는(은) 늘 일을 잘 한다.

1a)의 ‘그’가 재귀대명사가 아닌 것처럼 2a)–2c)의 ‘그’ ‘그녀’ ‘그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이것들은 例文에서 보는 것처럼 선행사가 없이도 쓰이는 일반 인칭대명사인 것이다.

이에 반해 ‘자기’나 ‘자신’은

7) Postal & Keyser(1976: 54)의 「Begining English Grammer」에서 영어는 동일 절 안에 상호지시적 명사구가 있으면 재귀대명사가 쓰인다.
‘……so far, we have only illustrated coreferentiality with pairs of NPs, at least one of which is a reflexive pronoun…’

국어에서는 상호지시적 명사구를 갖을 때 우선 대명사화 변형이 일어나고 그 다음 재귀대명사화 변형이 일어난다. 이에 대해서는 김일웅(1980), “대명사화 변형과 재귀대명사화 변형에 대해”(국어국문학 17, 부산대) 참고할 것.

- 3) a. *자기 } 는(은) 늘 일을 잘 한다.
 b. *자신 }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행사 없이는 非文이 되고 만다. 이들은 선행사 없이 사용될 수 없으며 일반 인칭대명사(그, 그녀, 그 사람, 그이, 이이, 저이 등)와는 구별되어 선행사를 되풀이 하는데 쓰이는 재귀대명사인 것이다.

이러한 재귀대명사의 형태들로는 '저/당신'이 있다.⁸⁾

이 재귀대명사들에 대하여 처음 논의의 대상으로 한 것은 '자기'였다.⁹⁾ 이 '자기'를 중심으로 尊稱의 정도에 따라 '저'와 '당신'을 대상으로 했고, '자신'을 재귀대명사로 보는 데는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이 사실은 여러 文法書나 研究論文에서 알 수 있다.

최현배는

아주높임 : 자기, 당신
 예사높임 : 자기
 예사낮춤 : 저
 아주낮춤 : 저

로 구분하고 있다.

안병희(1963 : 207)에서도 「自己」와 同一人稱으로서 尊稱을 달리 하는 것에 「당신」(尊稱)과 「저」(卑稱)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익섭(1978)은 '저/자기/당신'을 재귀대명사의 형태로 제시하고 존칭 '당신', 평칭 '자기', 비칭 '저' '자기'로 구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응백·안병희(1979 : 22~23)에서도 '저/자기/당신'을 재귀대명사로 제시하고, 이를 '당신'은 존칭, '자기'는 평칭, '저'는 평칭과 비칭으로 구분하고 있다.

8) 최현배의 「우리말본」에서는 '두루가리킵 사람 대이름씨'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재귀대명사를 인정하면서 '저, 남, 자기, 다른이, 당신'을 들고 있는데 여기서 '남'과 '다른이'가 재귀대명사가 될 수 없음은 이익섭(1978)에서 입증되고 있다.

9) 고영근(1983), 「국어문법연구」, 탑출판사, p.135.

이익섭·임홍빈(1983:248)에서도 ‘저/자기/당신’이 선행사의 경어적 등급에 따라 결정되며 ‘저’와 ‘자기’는 거의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쓰이지만, ‘저’는 ‘자기’보다 ‘선행사’를 조금 낮추어 말할 때 쓰인다고 했다.

이상의 것들을 종합하면 재귀대명사의 형태로는 ‘저/자기/당신’이 있으며 尊待의 정도에 따라서 ‘저’는 卑稱, ‘자기’는 平稱, ‘당신’은 尊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성광수(1975, 1981), 김일웅(1980)에서는 ‘자신’을 재귀대명사로 보고 오히려 ‘자기’보다는 ‘자신’이 더 잘 쓰이고 있음도 입증하고 있다.¹⁰⁾ 필자도 ‘자신’을 재귀대명사로 보기 때문에 그 형태로서 앞에 전제했다.

‘자신’만을 특별히 취급해서 다루는 것이 이상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검토되어 온 대상이 ‘저/자기/당신’이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하여 살펴본 후에 ‘자신’에 대해서도 검토하면서 ‘자신’도 재귀대명사임을 밝히고자 한다.

先行하는 代名詞를 다시 가리켜 사용되는 재귀대명사로 ‘저/자기/당신’이 논의되고 있으며 ‘자기’를 중심으로 ‘저’는 비칭, ‘당신’은 존칭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들 중 ‘저’는 원래 後期 中世國語에서는 三人稱의 ‘저’였으며, 19世紀 末葉부터 一人稱 兼稱으로 사용되고 現代國語에 와서 비로소 再歸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¹¹⁾

이제 例文을 통해서 살펴보겠다.

- 4) a. 철수는 제 몫을 챙겼습니다.
- b. 철수는 자기 몫을 챙겼습니다.
- 5) a. 박색이 저 못난 줄 모른다.
- b. 짐승도 제 새끼는 사랑한다.

4a)의 ‘제’와 4b)의 ‘자기’는 모두 철수를 받고 있다. 똑같은 대상을 받고

10) 이익섭(1978)은 영어에서 myself, yourself등의 self에 ‘자신’을 대당사킨 번역이며 의미를 좀더 확실히 하기 위해 첨가된 요소일 뿐이지 재귀대명사가 될 수 없다고 했다.

11) 김형철(1981), “인칭대명사 ‘저’에 대하여”, 문학과 언어 제2집, 참고. 이기문(1978), 유창돈(1971:266), 최현배(1929:235)에서 ‘저’에 대한 사적 고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있는 ‘제’와 ‘자기’를 前者는 卑稱이요, 後者는 平稱이라고 구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둘 다 모두 평범하게 철수를 되받고 있는 평칭으로 쓰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5)에서 ‘저(제)’는 어떠한가. 이것들은 모두 속담에 쓰이고 있다. 물론 박색이나 짐승을 비하해서 표현한 비칭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俗談 특유의 표현이지 꼭 비칭으로 쓰였다고 확정짓기는 아직 꺼려진다. 그런데,

- 6) a. 그사람 저 잘난 맛에 사는군.
- b. 그사람 자기 잘난 맛에 사는군.

에서 ‘저’와 ‘자기’의 존재의 정도는 구분되는 것 같다. 두 문장 다 ‘그사람’을 되받고 있는데 6a)는 ‘저’로 인하여 ‘그사람’이 훨씬 낮추어 표현된 것 같고, 6b)는 ‘자기’로 인하여 좀 대접받고 있는 것 같다.

5)의 문장을 다시

- 5) a'. 박색이 자기 못난 줄 모른다.
- b'. 짐승도 자기 새끼는 사랑한다.

라고 ‘저(제)’ 대신 ‘자기’를 대치해 보면 이것도 역시 ‘박색’이나 ‘짐승’을 조금 대접해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박색’이나 ‘짐승’을 대접해서 표현한다는 것이 이상하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는 ‘저’와 ‘자기’가 쉽게 대치되어 쓰일 수 있음도 알 수 있다. 尊待의 차이가 어떻게 나고 있든간에 6)이나 5)를 통해서 볼 때 ‘저’와 ‘자기’는 무리없이 대치될 수 있을 것 같다. ‘자기’가 ‘저’보다 높임으로 쓰인다는 것은

- 7) a. 누나는 지금 자기(?*제) 방에 있어요.
- b. 김씨는 자기(?*제) 자식만 제일로 알아요.
- c. 대위님은 자기(?*제) 군대를 잘 통솔했습니다.

등의 문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러나,

- 8) a. 그치, 자기가 될 안다고 나서지?
b. 췌! 녀석은 자기만 최고로 안단 말야.

에서 보면 ‘자기’가 ‘저’보다 항상 높임으로 쓰이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선 오히려 ‘그치’나 ‘녀석’을 받는 비칭으로 ‘자기’가 쓰이고 있다.

- 9) 영수는 자기에게 돈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자기’가 그냥 平稱代名詞로 사용되었다. 앞의 4)의 문도 역시 ‘제’나 ‘자기’가 평칭대명사로 쓰였다.

이렇게 보면 ‘저’와 ‘자기’를 존대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한 일인지도 모른다. ‘저’와 ‘자기’는 자유롭게 교체되어 쓰이기도 하고, ‘자기’가 ‘저’보다 항상 존대되어 쓰이는 것도 아니며 ‘저’가 항상 비칭으로만 쓰이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의 여러 문을 통해서 볼 때 대체로 ‘저’는 ‘자기’보다 좀 비칭으로 쓰이고 있고 ‘자기’는 ‘저’보다 더 대접을 받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어서 ‘저’는 ‘자기’의 비칭이라고 하겠다.

‘저’나 ‘자기’에 대해 ‘당신’이 尊稱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다.

- 10) a. 어머님께서는 당신(*제, *자기) 몸만 걱정합니다.
b. 내 동생은 자기(제, *당신) 몸만 걱정합니다.
c. 내 아들녀석은 제(자기, *당신) 몸만 걱정합니다.

등에서 볼 때, 10a)의 선행사 ‘어머님’은 10b), 10c)의 선행사 ‘동생’이나 ‘아들녀석’ 보다는 훨씬 존대받아야 할 대상이며, 따라서 ‘저’나 ‘자기’가 아닌 ‘당신’으로 되받고 있다. 여기서 ‘당신’은 ‘저’나 ‘자기’보다는 존칭의 재귀대명사임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자기’는 평칭 선행사를 되받는 대명사이며, ‘당

신'은 그 평칭 선행사 자리에 존칭 선행사가 오면 자동적으로 '자기'자리에 오는 대명사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이다.¹²⁾

- 11) a. 아주머니(아저씨)는 집에 계십니까?
b. 할머니는 집에 계십니까?

에서 '아주머니(아저씨)'나 '할머니'는 모두 '계십니까' 정도로 존대받는 대상들이다. 그러나 이 선행사가 재귀화될 때는

- 12) a. 아주머니(아저씨)는 자기(*당신) 집에 계십니까?
b. 할머니는 당신(*자기) 집에 계십니까?

로 되어 '아주머니'나 '아저씨'는 비록 존대받는 대상이지만 이것이 재귀화될 때는 '할머니'와 동등하게 존대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비록 존대되고 있는 인물이라해도 '아주머니'나 '아저씨' 정도의 선행사가 '당신'으로 재귀화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 13) a. ?사장님은 오늘 회의에서 당신의 의견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b. ?교장선생님은 당신의 전공이 '국어'라고 하셨습니다.

이 문장들은 '사장님'이나 '교장선생님'을 '당신'으로 받아 어색한 문장이 되고 있다. 이것은 물론 틀린 문장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대체로 先行名詞가 尊稱名詞라 해도 공적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공적인 자리에서 할 때 어울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¹³⁾ '당신'은 비교적 사적인 자리에서 많이 쓰이며, 앞의 '저'나 '자기'보다는 낡은 투의 말로서 젊은층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생소하게 느껴지고 있다.

따라서 '자기'의 존칭으로서의 '당신'은 선행명사가 존칭이어야 하되 공적인 사람들을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할 때는 잘 쓰이지 않는다는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2) 이익섭(1978), 이익섭·임홍빈(1983)「국어문법론」, 학연사, 참고.

13) 이익섭(1978), 이익섭·임홍빈(1983) 참고.

그리고 ‘당신’은 話者가 어린사람일 때도 쓰기 어렵다.¹⁴⁾ 앞의 10a)나 11b)를 어린아이가 말한다면 이상하게 들릴 것이다.

이처럼 ‘당신’은 ‘자기’나 ‘저’와는 달리 많이 제약되어 쓰이고 있다. 제약되어 쓰이는 환경을 요약해 보면, 先行名詞가 尊稱名詞여야 한다는 것, 둘째, 비록 존칭의 선행사라 해도 공적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공적인 자리에서 할 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 셋째, ‘당신’은 화자가 어린사람일 때는 쓰이기 어렵다는 것 등이다.

이렇게 보면 결국 선행사가 평칭명사에서 존칭명사로 바뀐다해도 ‘자기’가 늘 ‘당신’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된다. 그리고,

- 14) a. 당신은 언제나 자기 밖에 모르시더군요.
b. 그분도 자기 행동을 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에서 ‘자기’는 ‘당신’이나 ‘그분’을 다시 받음으로써 재귀대명사 ‘당신’만큼의 존칭으로 쓰이기도 한다.

‘저’와 ‘자기’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자기’와 ‘당신’의 한계도 애매한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예는 극히 드물며 아무래도 ‘당신’은 ‘저’나 ‘자기’보다 훨씬 존칭으로 쓰이고 있음이 확실하다.

- 15) a. 박색이 저(자기, *당신) 못난 줄 모른다.
b. 내 동생은 자기(제, *당신) 몸만 걱정한다.
c. 아버지께서 당신이(*자기가, *제가) 가겠다고 말씀하셨다.

에서 보듯이 ‘당신’은 ‘아버지’와 같은 선행사를 받는 존칭임이 확실하다. 그리고 ‘저’와 ‘자기’처럼 ‘당신’이 ‘자기’와 자유롭게 넘나들며 쓰이는 것도 아니며 ‘자기’가 ‘당신’만큼의 尊稱으로 쓰이는 경우가 드물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자기’와 ‘당신’의 尊稱限界에 애매성을 제시할 수는 없다.

말하자면 ‘저’와 ‘자기’가 비록 자유롭게 바뀌어 쓰이긴 하지만 그 쓰일 자리가 구분되고, 俗談에 주로 나타나는 ‘저’는 ‘자기’보다는 좀 비하된 느낌을

14) 이익섭(1978), 이익섭·임홍빈(1983) 참고.

주고 있어서 ‘저’는 ‘자기’의 卑稱으로 볼 수 있고, ‘당신’은 이들에 비해 훨씬 尊稱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기/당신’ 간의 尊稱의 限界를 구별하는 것이 무의미한 일일지도 모르나 그 대체적 쓰임을 통해서 ‘자기’는 平稱, ‘저’는 卑稱, ‘당신’은 尊稱으로 볼 수 있다.

‘저/자기/당신’을 재귀대명사로 보고 이 三者間的 關係를 파악하는 데는 저의 수긍하고 있으나 ‘자신’을 재귀대명사로 보는 데는 약간의 異論이 있다.¹⁵⁾

그러나 다음 예문에서 보면, ‘자신’은 틀림없이 재귀대명사가 되고 있다.

- 16) a. 나는 자신(‘자기’)의 운명을 모른다.
- b. 너는 자신(‘자기’)의 운명을 아느냐?
- c. 점장이도 자신(자기)의 운명은 잘 모른다.
- 17) a. 나는 자신(‘자기’)을(를) 미워한다.
- b. 너는 자신(‘자기’)을(를) 미워하니?
- c. 그 사람은 자신(자기)을(를) 미워한다.

오히려 1·2·3인칭 모두 되받는 성격이 있고 ‘자기’보다도 훨씬 더 문의 의미를 선명하게 해주고 있다. 16a)b)와 17a)b)의 ‘자기’는 요즘 젊은층에 쓰이고 있는 2인칭 대명사로서의 ‘자기’와 혼동을 가져오며 이들에서는 ‘자신’의 쓰임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 16c)와 17c)에서는 ‘자신’과 ‘자기’가 모두 쓰일 수 있어서 통용되어 쓰일 수도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나,

- 18) a. 자기의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
- b.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
- 19) a. ?자기의 문제는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
- b. ?자신의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

15) 이익섭은 註10)에서처럼 재귀대명사로서의 ‘자신’을 부인했고, 성광수(1975, 1981)와 김일웅(1980) 등은 인정하고 있다. 이 외에 김일웅(1980)에서는 ‘자신’을 재귀대명사로 보는 이정민(C. M. Lee 1974 : 70), S. E. Martin, 이익환(I. H. Lee. 1978 : 83) 등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나 필자는 접해보지 못했다.

에서 ‘자신’과 ‘자기’가 그렇게 쉽게 교체되어 쓰이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¹⁶⁾

‘자신’은 또

- 20) a. 그는 자기 자신의 일을 잘 해내었다.
 b. 그는 그 자신의 일을 잘 해내었다.
 c. 그는 제 자신의 일을 잘 해내었다.

에서 다른 재귀대명사에 덧붙거나, 다른 照應的 名詞句(anaphoric NP)에 쉽게 덧붙는 특색이 있다.¹⁷⁾

성광수(1975)는 通稱代名詞 ‘저/자기/자신’을 논의하는 데에 ‘자기’와 ‘자신’의 차이점으로 ‘자기’는 單文내에 나타날 수 없는 데 반해 ‘자신’은 단문내에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음 예문을 들고 있다.

- 21) a. ?그는 꽃을 자기에게 달았다.
 b. 그는 꽃을 자신에게 달았다.
 22) a. ?너는 자기를 알라.
 b. 너는 자신을 알라.
 23) a. ?나는 자기를 믿는다.
 b. 나는 자신을 믿는다.

그러나 21a)은 성립되는 것 같고 22a)도 어색한 것 같지만 성립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23a)도 ‘자기’가 재귀대명사로 쓰인 것은 아니지만 非文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자신’은

- 24) a. *자신은 학교에 갔다.
 b. *자신은 일찍 일어났다.

에서처럼 單文의 主語로 나타나지 않는다. 즉 ‘자신’은 단문에서 나타나지 않

16) 성광수(1981 : 35-36) 참고.

17) 김일웅(1980), “대명사화 변형과 재귀대명사화 변형에 대해” p.5인용.

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들은 모두 재귀대명사의 개념에 귀결해 보면 어느 정도 해결된다. 즉 23a)가 비문은 아니지만 재귀대명사로서는 先行詞와 관련해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는 선행사를 되받고 있다가 보다 2인칭 대명사로서의 '자기'를 연상시켜 성립될 수 없으며, '자신'이 단문의 주어로서 나타날 수 없음은 재귀대명사는 선행사가 아니라 그것을 되받는 대명사라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그래도 문제시되는 것은 21a)와 22a) 같은 문이다. '자기'와 '자신'의 차이점이 무엇이든간에 이들 문제도 재귀대명사로 합당하게 쓰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이것은 의미론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어쨌든 '자신'이 재귀대명사임은 분명하고 '자기'와 비교적 같은 위치의 선행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 25) a. 철수는 자기 몫을 챙겼어요.
 b. 철수는 자신의 몫을 챙겼어요.
- 26) a. 김씨 아저씨는 자기 자식만 제일로 알아요.
 b. 김씨 아저씨는 자신의 자식만 제일로 알아요.
- 27) a. 선생님은 자기가 옳다고 우겼다.
 b. 선생님은 자신이 옳다고 우겼다.

이 예문들에서 '자기'로 되받는 '철수, 김씨 아저씨, 선생님' 정도의 선행사는 '자신'으로 되받아도 어색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존재정도도 '저'나 '당신'과 비교한 '자기'의 존재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2. 再歸代名詞의 複數形

국어에서는 人稱代名詞의 複數派生法이 각 人稱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1인칭 '나'의 복수는 '우리'로 형태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2·3인칭에는(너, 저) /-회/ 접미사가, 미지칭·부정칭(누구, 아무)에는 /-들/ 접미사가 붙는다.¹⁸⁾

18) 서주열(1973), "國語 人稱代名詞의 複數派生考", 청계 김사엽 박사 송수 기념논총, 참고.

再歸代名詞의 複數形은 ‘저희(들)’로써 一般人稱代名詞의 복수과생법에서 나타나는 접미사가 그 단수형에 결합되어 나타난다.

‘저’의 복수형은 /-희/ 접미사의 ‘저희’이다.

- 28) a. 그 집안 종손들은 저희(*제) 가문을 위해서는 발벗고 나선다.
 b. 학생들은 아침에 저희(*제)학교를 청소한다.

의 ‘저희’는 선행사 ‘종손들, 학생들’이 複數이기 때문에 쓰인 복수 재귀대명사이다.

그런데,

- 29) a. 철수는 온종일 저희 집 앞을 서성이고 있구나.
 b. 그 사람은 밤새도록 저희 원두막을 지켰다.

에서는 선행사가 단수인데도 ‘저희’가 쓰였다. 이것은 우리 국어에서 ‘집, 학교, 나라’ 등 일반적으로 한 개인의 소유물 보다는 한 가족이나 어떤 구성원의 공동 소유물로 인식되는 것들 앞에서 ‘우리, 너희’ 등의 複數代名詞가 쓰이는 것¹⁹⁾과 마찬가지로, ‘집, 원두막’ 앞에서 ‘철수’ 또는 ‘그 사람’이 복수 재귀대명사로 받은 것이다.

‘저희’는 재귀대명사 ‘저’의 복수형으로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쓰이기도 한다.

- 30) a. 저희(들)은 나중에 가겠습니다.
 b. 저희 집은 이 동네에 있습니다.
 c. 저는 온 종일 저희 집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모두 1인칭 겸손으로 쓰이고 있다. 30a)와 30b)는 선행하는 대명사가 없어 혼동할 염려가 없지만 30c)는 1인칭 ‘저’를 되받고 있어서 29)의 재귀대명사 ‘저희’와 구별이 모호해진다. 이것은 문맥의 전후 상황을 파악해야 가능한 문제이다. 29)의 ‘저희’는 ‘철수’라는 선행사가 반드시 있어야만

19) 이익섭·임홍빈(1983: 241-243) 참고.

칭자에게 누가 자기 집 앞을 서성이고 있는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30c)는 선행사 ‘저’가 없어도 칭자에게 화자 자신이 그의 집 앞을 서성거렸다는 사실을 무리 없이 전달할 수 있는 문이다. 즉 29)에서는 꼭 필요한 선행사 ‘철수’를 되받는 재귀대명사로, 30c)는 단순히 1인칭 겸손으로 쓰인 것이다.

‘저’ 이외의 것들은 /-들/ 접미사에 의해 그 복수형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들의 쓰임은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

- 31) a. 대중 가수들은 자기(자기들, 자신들) 나라에서 더 인기 있다.
b. 선수들은 자기(자기들, 자신들) 운동량을 알아 두어야 한다.

에서는 선행사가 복수이지만 단·복수형 재귀대명사를 다 쓸 수 있다.
반면,

- 32) a. 그 고아들은 자기들(*자기)에게 생활비를 보조해 주는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몰랐다.
b. 우리 조상들은 당신들(*당신) 자손에게 큰 기대가 있었다.

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실에서 재귀대명사를 꼭 複數니 單數니 하고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지만 전혀 구분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즉, 선행사가 복수이면 대체로 복수 재귀대명사로 받지만 ‘자기들(자신들)’의 쓰임은 ‘저희’나 ‘당신들’의 쓰임보다 좀더 한정적으로 나타난다.

IV. 再歸化에 있어서 先行詞와 敘述語

1. 再歸化에 있어서 先行詞의 條件

再歸代名詞의 여러 형태들을 고찰하면서 재귀대명사는 선행사를 꼭 필요로 하는 대명사이며 그것을 되받는 역할을 하고 있음은 이미 살펴 보았다.

- 33) a. *자기는 그것을 모른다.
b. *자기를 철저히 탐색하라.

이처럼 선행사가 없이는 재귀화되지 않으니 재귀화에 있어서 선행사의 조건에 대해 살펴 보겠다.

대체로 재귀대명사는 특정 人稱範疇에 속하지 않고 별도로 취급되는데 그것이 3인칭만을 되받는다는 견해와 1·2·3인칭 모두를 되받는다는 견해가 있다.

앞에서 例示로 들었던 문장들을 잠시 돌아보면 '저/자기/당신'으로 받아들인 선행사는 전부 3인칭이었다. 그런데 '자신'으로 받아들인 선행사는 1·2·3인칭이 다 포함되어 있다.

- 16)' a. 박색이 저 못난 줄 모른다.
b. 내 동생은 자기 몸만 걱정한다.
c. 아버지께서 당신이 가겠다고 말씀하셨다.
17)' a. 나는 자신의 운명을 모른다.
b. 너는 자신의 운명을 아느냐?
c. 점장이라도 자신의 운명은 모른다.

3인칭만이 재귀화된다는 견해는 '자신'을 재귀대명사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을 재귀대명사에 포함시키는 견해는 모든 인칭이 다 再歸化된다고 한다. 本稿에서는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우선 再歸代名詞의 概念을 전제했고 그 형태로 '저/자기/당신'과 '자신'을 들었다. 따라서 이 네 형태의 재귀대명사가 선행사를 되받는 양상을 통해서 볼 때, 1·2·3인칭 모두 재귀화 될 수 있다.

1·2·3인칭 모두 재귀화되는데, 그것이 有情名詞(+Animate)여야 한다는 것이 또한 선행사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다. 無情名詞(-Animate)를 되받는 일은 원칙적으로 국어에서는 없는 것 같다.

- 34) a. 바위는 그(*제, *자기) 생김새에 따라 쓰임이 다르다.
b. 자전거는 그것을(*저를, *자기를) 산 사람에게 이득을 주어야 한다.

그런데 김일웅(1980:6)은 선행사가 非有情物일 때,

어느 학교나 $\left[\begin{array}{l} \text{자체의} \\ \text{학교 자체의} \\ \text{그 자체의} \end{array} \right]$ 문제가 있다.

에서처럼 ‘자체’가 쓰인다고 하고, ‘자체’를 재귀대명사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의 辭典의 品詞는 名詞이며 一般代名詞를 동반하고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일반대명사와 구분되어 늘 선행사를 되풀이 할 때 쓰이는 재귀대명사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아마도 김일웅은 代用 문제와 관련지워 보려는 데서 그렇게 보아진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 35) a. 창호는 자기 집으로 갔다.
 b. 창호는 영수를 자기 집으로 가자고 졸랐다.
 c. 창호는 영수를 자기 집에서 만났다.
 d. 창호는 영수를 자기 집에서 찾아냈다.

이 예문들에서 재귀대명사의 선행사는 主語여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 36) a. 순자는 $\left[\begin{array}{l} \text{영자를} \\ \text{영자에게} \end{array} \right]$ 자기 침대에서 자게 했다.
 b. 민호는 $\left[\begin{array}{l} \text{영수를} \\ \text{영수에게} \end{array} \right]$ 자기 연구실에 가 있도록 했다.

에서는 直接目的語와 間接目的語도 再歸化되고 있다.

目的語를 선행사로 택할 경우도 補文構造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들 목적어는 基底構造에서 補文主語와 相互指示의이며 同一名詞句의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결국 主語라 할 수 있다.²⁰⁾ 즉 36a)는 ‘순자는 영자를(영자에게) [영자가 자

20) 김일웅(1980), p. 8인용.

기 침대에서 자다] 하게 했다', 36b)는 '민호는 영수를(영수에게) [영수가 자기 연구실에 가다]하게 했다'의 보문구조에서 '영자'와 '영수'가 주어가 되고 있으며, '자기'는 이들을 되받고 있다.

- 37) a. 아저씨는 $\underset{i}{\text{창호}}$ 를 $\underset{j}{\text{자기}}$ 집에서 놀도록 했다.
 b. 아버님은 할머니를 $\underset{j}{\text{당신}}$ 방에만 계시게 했다.
 c. 나는 $\underset{i}{\text{철수}}$ 에게 $\underset{j}{\text{자신의}}$ 손을 씻도록 다가갔다.

이들은 모두 보문구조를 갖고 있으며 목적어가 그 구조내에서는 주어가 되고 있어서 再歸化되었다. 이러한 기저구조가 표층구조에 그대로 나타나 주어는 물론 목적어가 모두 재귀대명사로 받고 있다.

- 38) a. 순이가 영화에게 $\underset{i}{\text{자기}}$ 를 자랑했다.
 b. 순이가 영화에게 $\underset{j}{\text{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의 보문구조를 갖지 않는 문에서는 목적어가 재귀화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주어를 선행사로 했을 때는 모두 재귀화되고 있으며, 目的語라 해도 보문구조에서 주어가 되고 있어서 재귀화에 있어서 선행사는 원칙적으로 「主語」여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래도 몇몇 例文들에서는 주어가 아니어도 재귀화되는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것은 다음 기회에 다루고자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재귀화에 있어서 선행사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요약하면, 1·2·3인칭 모두 재귀화가 가능하다는 것, 有情物이 선행사여야 하며 문장내에서 원칙적으로 「主語」여야 한다는 것 등이다.

2. 叙述語의 意味 特性과 文法的 機能

여기에서 보문구조의 주어일 경우를 포함해서 선행사와 상호 지시적이며 동일 명사구의 관계를 갖는 「主語」여야만 재귀화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叙述

語의 意味 特性과 文法的 機能이 再歸化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볼 것이다.

보문구조를 갖는 문에서 목적어가 보문구조의 주어일 때는 재귀화되고 있었다.

39) 영수는 철수에게 자기를 씻으라고 했다.

i j i/j

그런데 이 문장을

40) 영수는 철수에게 자기를 씻도록 다가왔다.

i j i/*j

처럼 敘述語를 바꾸면 보문구조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主語와 目的語가 모두 재귀화되고 있지도 않다.

여기에서 재귀화에 있어서 선행사의 조건으로 선행사가 주어여야 하며, 목적어라 해도 원칙적으로 보문에서 주어가 되고 있는 경우도 재귀화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목적어라 해도 보문의 주어 즉 「主語」로써 받아들이고 선행사가 주어여야 한다는 조건을 정한 것이므로 문제삼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보문구조를 갖고 있고, 목적어가 보문구조의 주어로써 파악된다 해도, 그것이 재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서술어가 재귀대명사의 선행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그것은 보문구조를 생각하지 않고서도 서술어에 따라 재귀대명사의 선행사를 명확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한다.

41) a. 명수는 어머니에게 자기를 자랑했다.

i j i

b. 나는 영미에게 자신을 깨닫게 해 준 것에 고마워했다.

i j i

c. 명수는 어머니를 자기를 내팽개친 사람으로 생각했다.

i j i

d. 명수는 영미를 자신의 애인으로 착각했다.

i j i

이 문장들의 서술어는 모두 主體語의 심리를 대변하는 것들이다. 이 때 재귀 대명사는 모두 주어를 되받고 있어서 선행사의 구분이 명확하다. 이러한 서술어로는 「슬프다, 기쁘다」 등이 있다.

42) a. 영미가 순희에게 자기가 예쁘다고 말했다.

i j i

b. 영미가 순희에게 자기가 춤추라고 말했다.

i j j

의 문은 主文의 서술어가 ‘말했다’로 똑같다. 그러나 재귀화의 대상은 다르다. 이들은 보문의 서술어가 각각 ‘예쁘다’ ‘춤추다’이다. 여기에서 주문의 서술어 뿐만 아니라 보문의 서술어도 선행사의 해석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3) a. 순희가 영미에게 자기가 잘못이라고 말했다.

i j i

b. 순희가 영미에게 자기가 직접 해보라고 말했다.

i j j

42), 43)에서 주문의 서술어가 같을 때는 보문의 서술어으로써 선행사를 구별해야 함을 알게 된다.

主文의 叙述語가 ‘말하다’ 류일 때는 다음과 같이 보문 동사의 종류에 따라 선행사가 결정된다.²¹⁾

우선 ‘예쁘다, 부지런하다’ 등의 속성을 나타내는 서술어일 때는 주어가 선행사이다.

또 ‘슬프다, 외롭다’ 등의 심리동사일 때도 선행사는 주어가 된다.

44) 영수가 영미에게 자기가 외롭다고(슬프다고) 속삭였다.

i j i

의식적이거나 통제가 가능한 동작일 때 선행사는 話者이다.

21) 김일웅(1980), 참고.

- 45) 영수가 영미에게 자기가 밥을 먹^었고 있^고 있^겠다고 소리쳤다.

주문의 서술어가 ‘말하다’ 류인 ‘약속하자, 보장하다’ 등일 때 보문의 서술어와 상관없이 선행사는 주어이다.

- 46) a. 영수가 영미에게 자기가 떠나겠다고 약속했다.
 i j i
 b. 영수가 영미에게 자기가 떠날 것을 보장했다.
 i j i

그러나 선행사의 결정에 서술어 자체의 의미 특성도 중요하지만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요소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 47) a. 형이 동생에게 자기 책을 읽혔다.
 i j i
 b. 아저씨는 그 아이에게 자기 신을 신겼다.
 i j i

는 使動詞를 서술어로 한 문장이다. 잘 알다시피 使動은 어떤 인물이 다른 인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는 態의 일종이다. 47)은 使役文으로서 주어가 재귀화되고 있는 예이다. 즉 서술어가 사동사일 때 선행사는 주어이다.

또,

- 48) a. 선생님은 그 학생에게 자기가 가겠다고 했다.
 b. 선생님은 그 학생에게 자기가 가라고 했다.

에서는 서술어의 ‘-겠-’과 ‘-라-’는 선행사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

요컨대, 서술어의 의미적 특성과 문법적 기능은 선행사 결정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심리동사를 서술어로 했을 때는 주어가 선행사가 되며, 주문의 서술어가 ‘말하다’ 류 일 때는 보문동사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주어가 선행사가 되고 있다. 또한 서술어의 문법적 특성도 선행사 결정에 영향을 준다.

V. 結 語

再歸代名詞에 대한 논의는 序言에서도 언급했다시피 變形生成理論의 발달로 최근에야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고 本稿에서도 이 점은 마찬가지이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 많은 관심으로 논의되어 체계화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再歸代名詞는 再歸的 特性和 代名詞的 特性을 갖는 것으로 재귀적 특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개념 규정이 다르다. 言語學 辭典이나 Lyons의 再歸性에 대한 해석과 國語의 人稱範疇는 動詞의 二次的 範疇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토대로 그 개념을 규정했다. 즉, 再歸代名詞란 ‘一般代名詞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先行하는 名詞나 代名詞를 다시 가리켜 사용되는 말’이다.

2) 이 재귀대명사의 개념에 부합하는 형태로 ‘저/자기/당신’과 ‘자신’이 있으며 이들의 複數形은 /-회/, /-들/ 접미사가 붙은 형태이다.

3) 再歸化될 수 있는 條件이 있으니, 첫째 1·2·3인칭의 어떤 先行詞도 모두 재귀화가 가능하며, 둘째 그 선행사가 有情物이어야 하고, 셋째 원칙적으로 선행사는 「主語」여야 한다.

4) 敘述語의 意味 特性和 文法的 機能이 再歸化的 先行詞 결정에 큰 역할을 한다.

參 考 文 獻

- 고영근(1983), 「국어문법연구」, (탑출판사).
- 김민수(1979), 「문법」, (어문각).
- 김일웅(1980), “대명사화 변형과 재귀대명사화 변형에 대해”, 국어국문학17, (부산대).
- 김형철(1981), “인칭대명사 「저」에 대하여”, 문학과 언어 제2집.
- 박지홍(1981) 「우리현대말본」, (문성출판사).
- 서주열(1973), “國語 人稱代名詞 複數派生考”, 청계 김사엽 박사 송수기념논총.
- 성광수(1975), “國語 代名詞에 대하여”-一人稱代名詞의 소위 通稱과 再歸化에 대한 檢討, 어문논집16(고려대 국어국문학 연구회).
- 성광수(1981), “국어 재귀대명사에 대한 재고”-‘자기’와 ‘자신’을 중심으로, 한글172호.
- 안병희(1963), “「조사」語攷”, 국어국문학 26.
- 유창돈(1971), 「어휘사연구」, (서울:선명)
- 이기문(1978), “국어 인칭대명사” 관악어문학 3집.
- 이응백·안병희(1979), 「문법」(보진재).
- 이익섭(1978), “한국어의 再歸代名詞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인문논총2.
- 이익섭·임홍빈(1983), 「국어문법론」(학연사).
- 이정민·배영남(1982), 「언어학사전」(한신문화사)
- 이희승(1978), 「새문법」(국정교과서주식회사)
- Keyser & Postal(1976), 「Beginning English Grammar」(Halliday Lithograph Corporation)
- Lyons(1968),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Cambridge University Press)
- Lyons(1977), 「Semantics I」, (Cambridge University Press)